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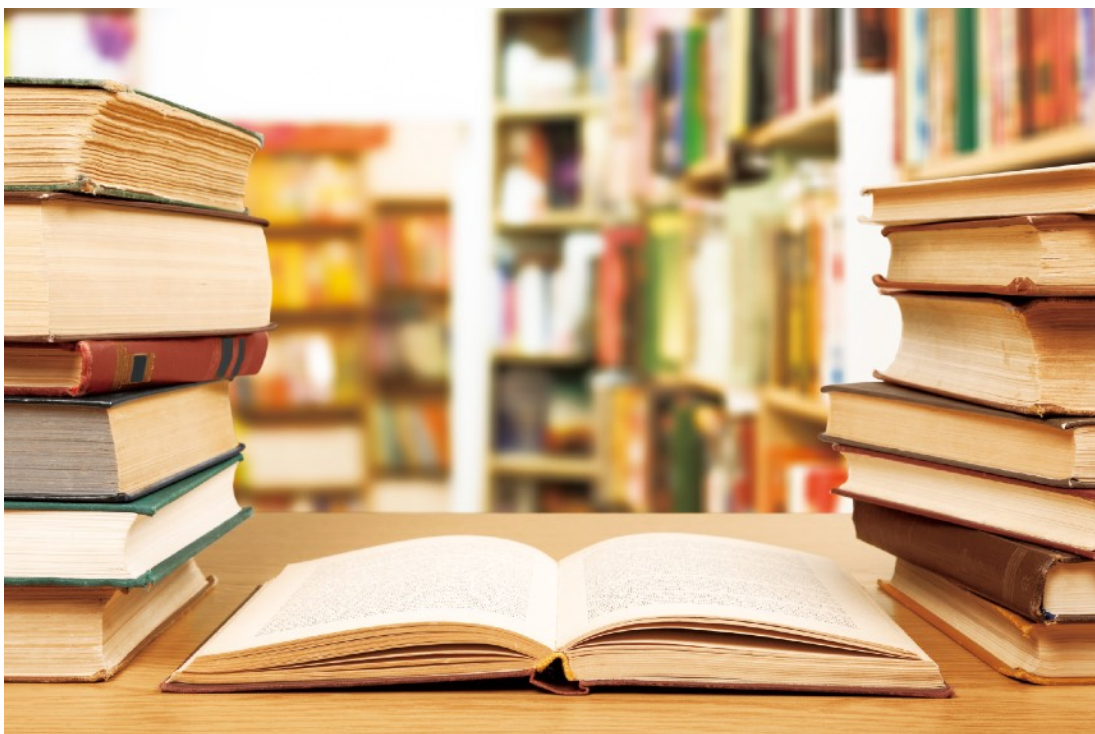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조사]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 소그룹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8인에게 묻다!
- 2) 메타버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현황 및 인식
- 3)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 소그룹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파급력은 막대하다. 사회 전 영역에서의 비대면 문화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 예배의 확산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들의 신앙활동 전반에 있어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새해에 대해 희망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다. 마땅한 대안도 헤쳐나갈 목회적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연구소는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를 ‘소그룹’으로 선정했다. 3040세대의 저조한 현장예배 참여율, 온라인예배의 일상화, 밖으로는 ESG로 대표되는 기업의 변화 등 교회 안팎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 본질로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이 모든 목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그룹’을 생각했다.

점점 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표의 한 꼭지로 <넘버즈> 127호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진단해 보고자한다.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신앙인식 등을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소그룹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규명하는 작업을 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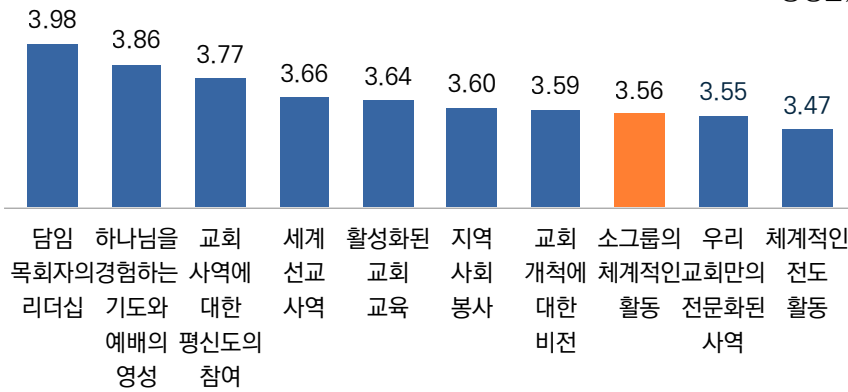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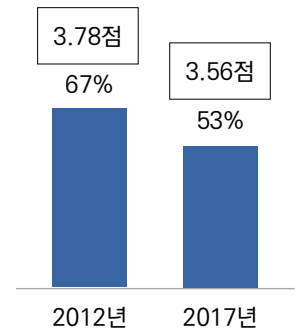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부터 성도들의 소그룹 니즈(needs) 불충족!

-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2018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2017년 조사)'에서 나타난 개신교인들의 출석교회 항목(10개)별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이 3.56점으로 하위권(8위)에 위치했는데, 이는 성도들의 소그룹의 니즈(needs)를 교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 ▶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 만족도를 2012년과 비교하면 3.78점에서 3.56점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자신의 출석교회 항목별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개신교인, 점)



[그림] 소그룹의 체계적 활동 만족도 (교회출석자, 긍정률, 5점 만점 평균, 2012 v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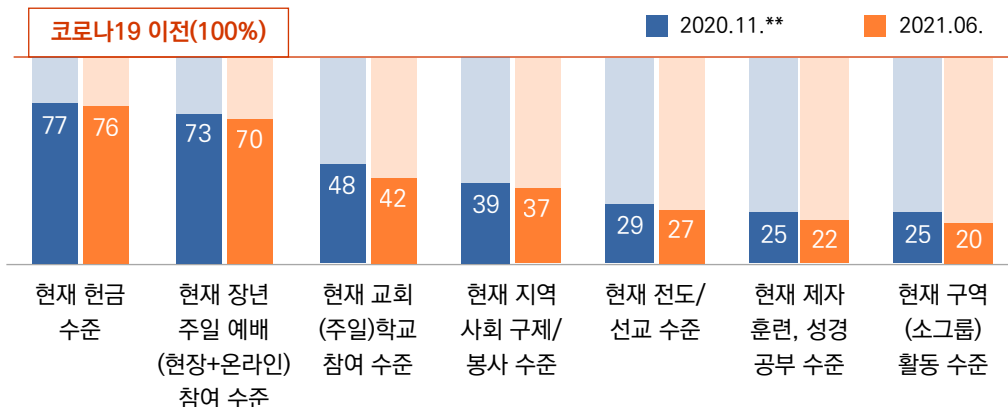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07.02.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 10-12월)

02

코로나 시대, 소그룹 활동 점점 줄고 있어...

- ▶ 2021년 6월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사역변화 정도'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을 100%로 가정했을 때, 항목별로 많게는 약 80%에서 적게는 30% 수준까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 ▶ 각 사역 중 소그룹 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제시한 7개 항목 중 코로나19 이전 대비 활동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의 급격한 위축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사역변화 정도(코로나19 이전을 100%로 가정, 목회자 대상)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목회데이터연구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1.09.13.,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 추적조사(교단 소속 담임목사 891명, 모바일조사, 2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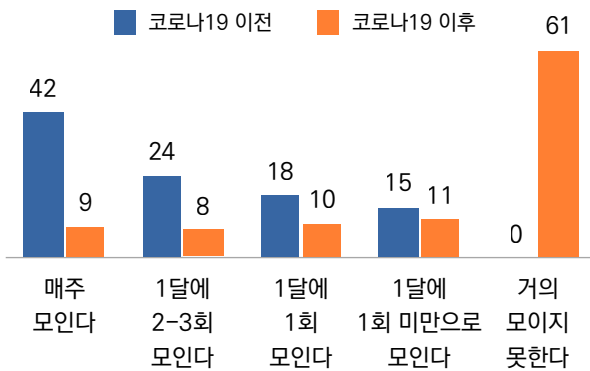
**2020.11.: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0.11)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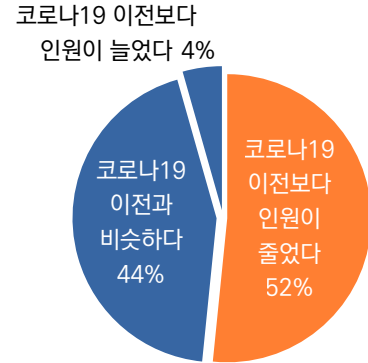
◎ 실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소그룹 멈췄다!

- ▶ 실제로 소그룹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소그룹 모임 빈도 변화'를 질문했는데, '매주 모인다'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42% → 코로나19 이후 9%로 크게 줄은 반면, '거의 모이지 못한다'는 코로나19 이후 61%로 나타나,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소그룹 활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 ▶ 참석인원도 줄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 4%, '줄었다' 52%로 대체로 코로나19 이후에 소그룹 모임이 유지되더라도 참석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 19 전후 소그룹 모임 빈도 변화(소그룹 활동자)
(단위 : %)



[그림] 코로나19 이후 소그룹 인원 변동 (소그룹 활동자)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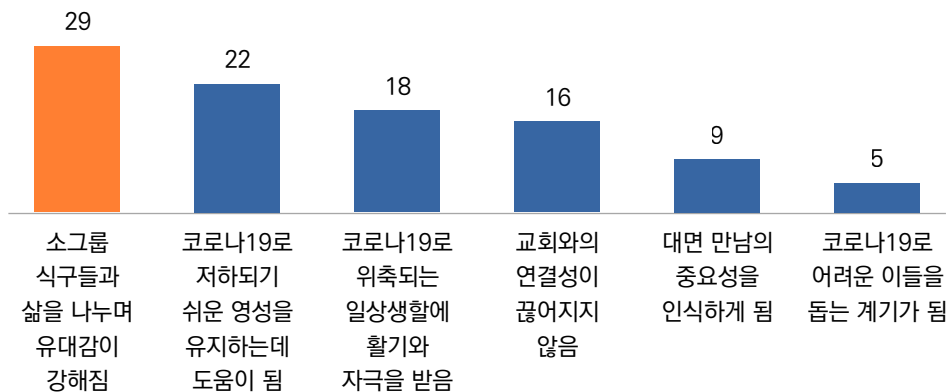
03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그룹의 유익함 1(개인/관계적측면) :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에 도움!

- ▶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모임이 주는 유익한 점을 보면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짐'이 29%, '코로나 19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이 22%로 앞의 두 항목에 답한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19로 위축되는 환경에서 구성원간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에 도움이 됨을 보여 준다.

[그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그룹 모임의 유익한 점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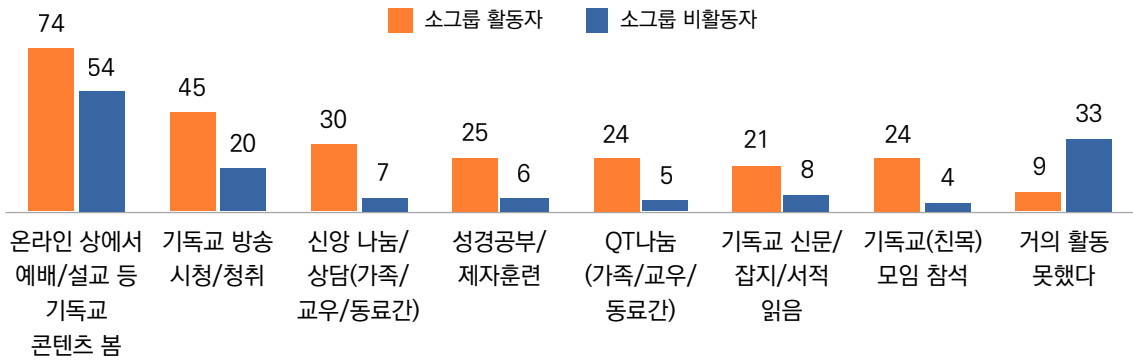
◎ 소그룹의 유익함 2(개인신앙)

: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기본 신앙 지표 월등히 높아!

- ▶ 이번 조사 결과,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간에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신앙 생활에 있어서 지난 1주일 간 신앙 활동에 대해,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2~4배 가량 높았다.

[그림] 지난 1주간 신앙 활동 내용 (중복응답)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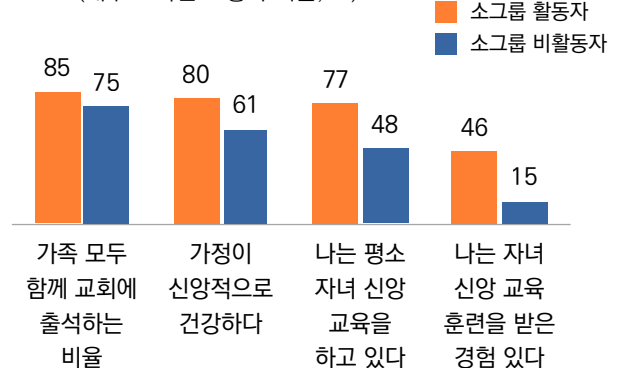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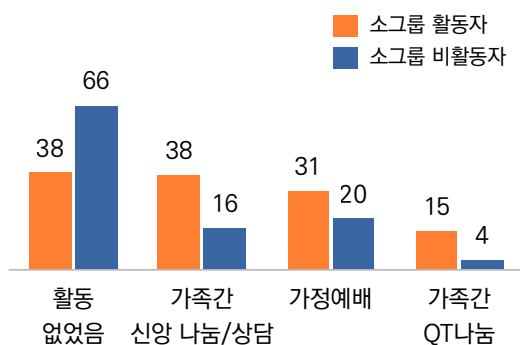
◎ 소그룹의 유익함 3(가정신앙)

: 소그룹 활동, 가정 신앙지표 상승으로 이어져!

- ▶ 지난 1주간 가족 간 신앙활동 교류를 한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는 62%, 비활동자는 34%로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가족간 신앙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그룹 활동이 가정 신앙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 특히 가족 간 신앙나눔은 두 그룹간 2배 이상, QT나눔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데, 소그룹 활동자의 경우 가족 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친밀도, 만족도가 비활동자보다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정신앙과 관련 소그룹 활동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가정 신앙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넘버즈 95호 10p 참조)

[그림] 지난 1주간 가족간 신앙적 교류 활동 (중복응답, %)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별 주요 가정 신앙 지표** (매우 + 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자료 출처 : 한국IFCJ 가정의 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자연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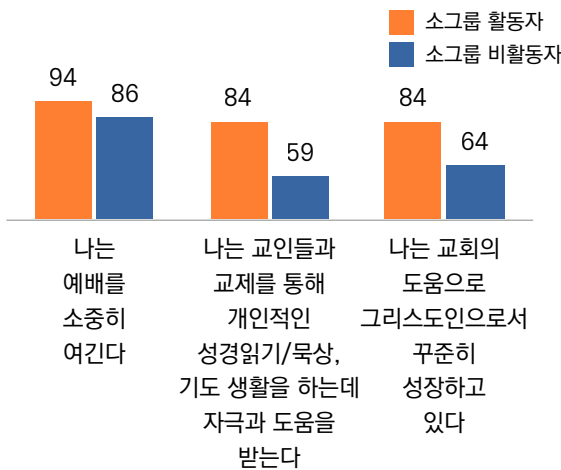
**4점정도 질문임.

◎ 소그룹의 유익함 4(교회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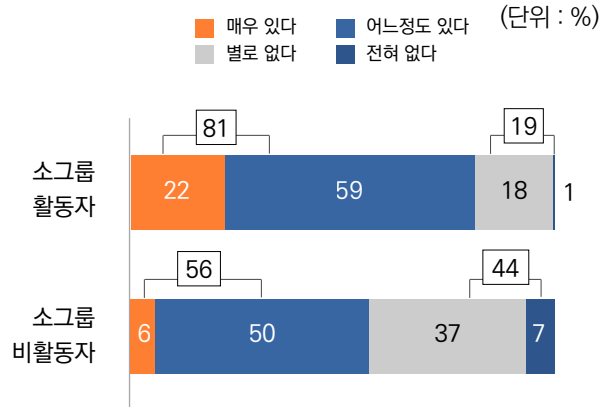
: 소그룹 활동자, 보다 더 교회 중심적! 적극적!

- ▶ 교회생활과 관련,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김', '교인들을 통해 신앙생활에 자극과 도움을 받음',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함' 등 세가지 측면 모두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 ▶ 또 신앙성장을 위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참여의향을 물었는데, 소그룹 활동자의 의향률이 훨씬 높았다.
- ▶ 이는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좀 더 교회 중심적이고, 관계에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생활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그림] 신앙성장을 위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참여의향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 4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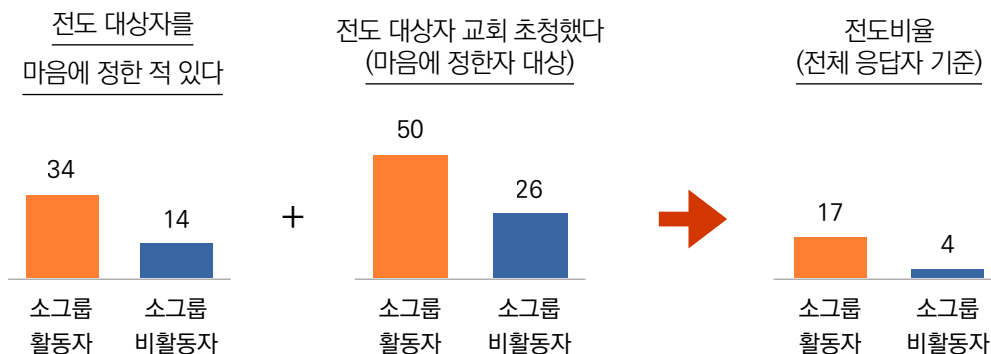
◎ 소그룹 모임의 유익함 5(전도영역)

: 코로나19 이후 전도활동에서 두 그룹간 가장 큰 차이를 보여

- ▶ 코로나19 이후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정했는지에 대해 소그룹 활동자 34%, 비활동자 14%로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마음에 정한 자가 그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한 비율은 활동자 50%, 비활동자 26%로 활동자가 더 많았다.
- ▶ 종합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도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교회에 초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 소그룹 활동자 17%, 비활동자 4%로 활동자가 비활동자 대비 무려 4배가 넘게 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전도 실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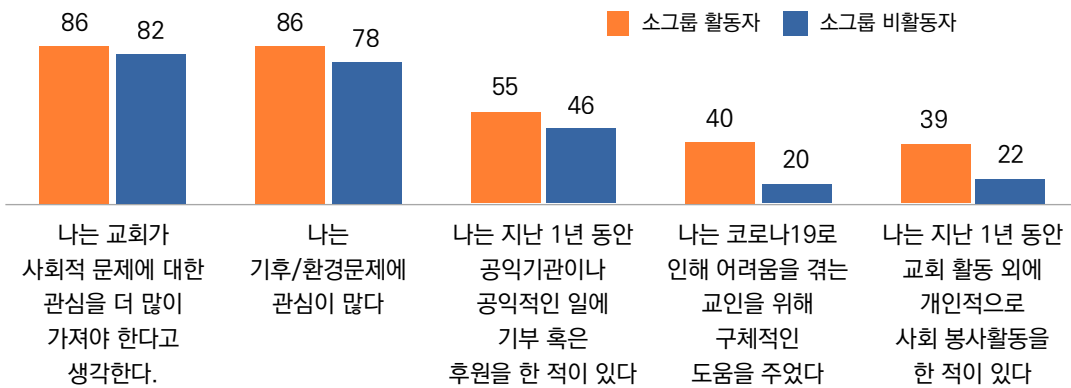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 소그룹 모임의 유익함 6(사회인식/참여)

: 소그룹 활동, 높은 사회문제 인식 및 참여율 연결돼!

- ▶ 신앙과 관련 없는 사회 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교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여인식, 기후환경 관심도 등에서 소그룹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문제 인식이 더 높았다.
- ▶ 또 참여적인 측면에서도 기부율, 교인을 위한 도움 제공, 사회봉사활동 등 참여율도 소그룹 활동자 그룹에서 더 높았다.
- ▶ 소그룹 활동자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 문제를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회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개신교인으로서 사회적 인식 및 역할(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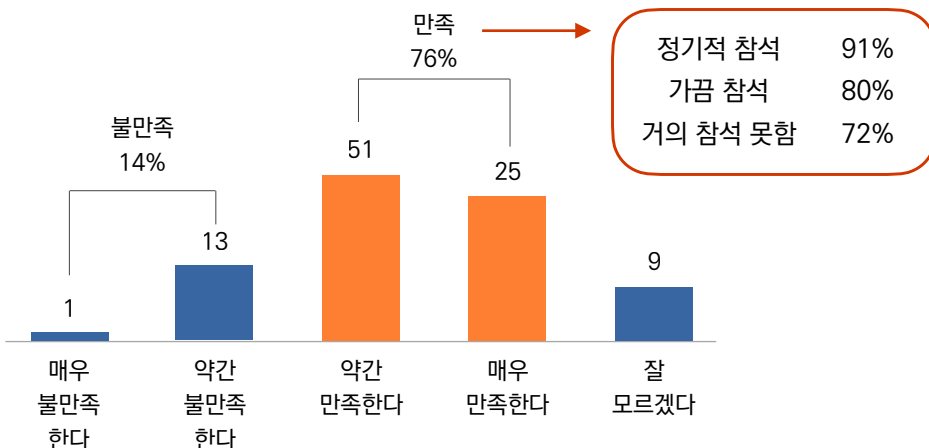
** 4점 척도 질문임

◎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만족도 91%

- ▶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타난대로 소그룹 활동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유익함을 끼치고 있는데, 실제 소그룹 활동자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 참석자의 만족도는 91%에 달하고 있다.

[그림] 현재 소그룹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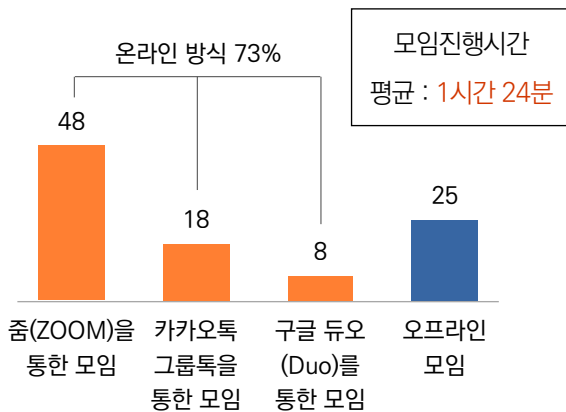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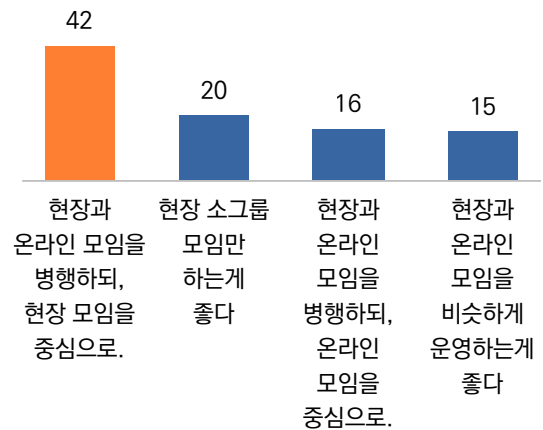
현재 소그룹 방식 : 온라인 73%, - 향후 현장모임 재개시 온오프라인 병행 선호!

- ▶ 현재 소그룹 방식은 73%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임 진행시간은 평균 1시간 2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 모임 재개 시 희망하는 모임 방식으로 42%가 ‘현장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현장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답했고, ‘현장 소그룹 모임만 하는 게 좋다’는 20%, ‘현장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선호도가 높았다.
- ▶ 이를 현장모임 중심과 온라인모임 중심, 두 가지로 합산하면, 현장 62%, 온라인 31%로 현장 모임 선호도가 높았다.

[그림] 현재 소그룹 모임 방식 (소그룹 참석자, %)



[그림] 현장 소그룹 모임 재개시 희망하는 모임 방식 (소그룹 활동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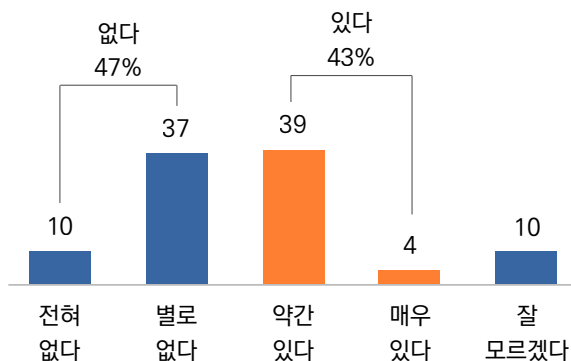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합계가 100%를 넘는 것은 통계적인 Rounding Error 임.

◎ 소그룹 비활동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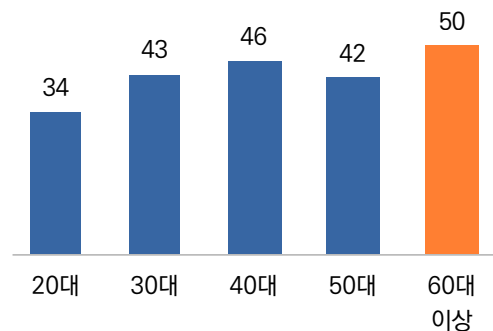
60대 이상 고령층, ‘향후 소그룹 참여하고 싶다’ 50%

- ▶ 현재 소그룹 비활동자 43%가 향후 소그룹 참석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의향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림] 향후 소그룹 모임 참석 의향 (소그룹 비활동자, %)



[그림] 향후 소그룹 모임 참석 의향 “있다”(매우+약간) (소그룹 비활동자, 연령별,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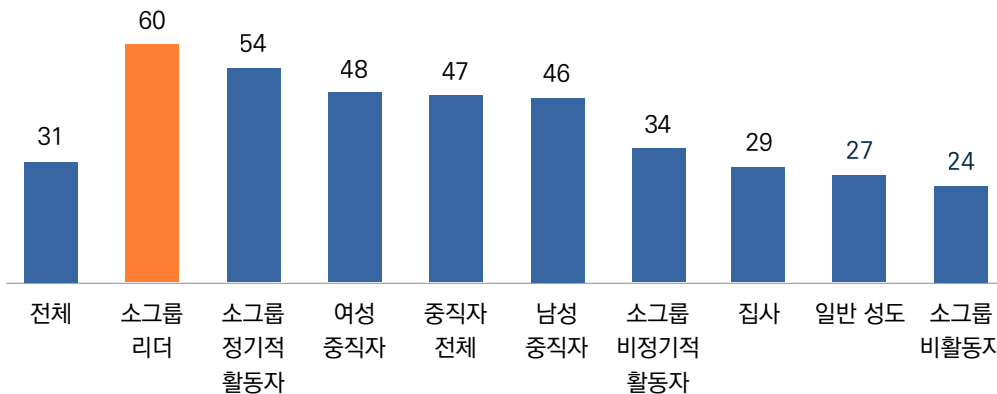
05

교회내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 : 소그룹리더 >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 중직자

- ▶ 앞에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회 내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분석해 보았다. 교인들을 총 9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신앙수준 분석을 위해 다음의 4개 항목 결과를 사용했다. 즉 '코로나19 이전 대비 양적 신앙생활 수준(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질적 신앙 수준(깊어졌다)',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의 일치 정도(매우 일치)', '주관적 신앙단계(4단계)' 등이다.
- ▶ 이 4개 항목의 긍정응답 그룹(신앙단계는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4단계 응답자)을 모두 합하여 「신앙수준 상위자」로 정의하고 집계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로 나타났다. 즉 본 분석에서는 31%의 교인들을 '교회 내 신앙수준 상위 그룹'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 앞에서 제시한 9개 그룹별로 신앙수준 상위자가 얼마나 속해있는지 분석한 결과 9개 그룹 중 '소그룹 리더 그룹'에서 신앙수준 상위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그룹 54%였다. 반면 '중직자' 그룹은 남녀 큰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의 40% 중후반대 비율로 3위권이었다.
-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교회 내 신앙수준은 '소그룹 리더' 그룹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직자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중직자의 신앙수준은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54%)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교회 내 그룹별 신앙수준 상위자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지주총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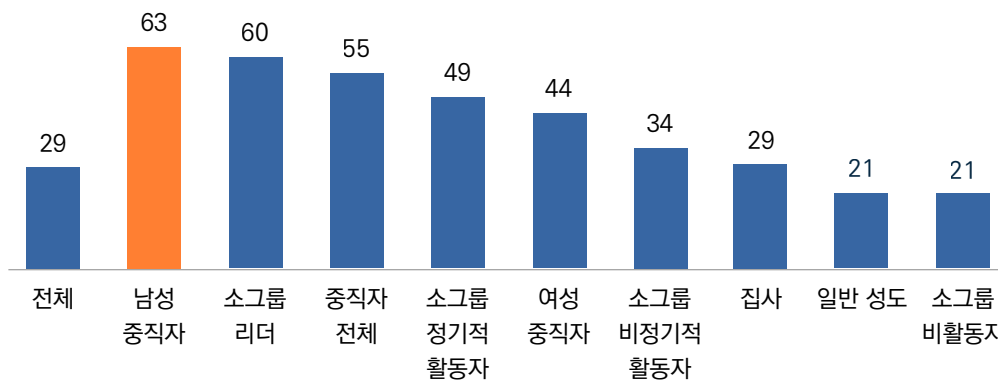
** 신앙수준 상위자 기준 = '코로나 이전보다 양적 신앙생활 늘어남' + '코로나 이전보다 질적 신앙수준 깊어짐' + '신앙생활과 세상생활 매우 일치' + '신앙단계 4단계'

◎ 교회 충성도가 가장 높은 그룹, 남성 중직자!

- ▶ 이번에는 동일한 교회 내 9개 그룹에 대해 교회 충성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에 사용된 기준 항목은 '십일조 생활(매월 1/10 이상 헌금)',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출석 예상(비슷+더자주)',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함(그렇다)' 등 총 3개 항목이다. 이 3개 항목의 긍정응답 그룹을 모두 합하여 「교회충성도 상위자」로 정의하고 집계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29%의 교인들을 '교회 내 충성도 상위 그룹'으로 간주하여 앞에서의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과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다.
- ▶ 각 그룹별로 교회 충성도 상위자가 얼마나 속해있는지 분석한 결과, 9개 그룹 중 '남성 중직자' 그룹에서 충성도 상위자 비율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의 신앙수준 상위 그룹 1위가 소그룹 리더였는데 그 결과와 약간 다른 결과이다. 다음으로 '소그룹 리더'에서 교회 충성도 상위 비율이 60%로 높았다.
- ▶ 앞서 신앙수준 분석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소그룹 리더'가 신앙수준과 교회 충성도에서 모두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교회 내 그룹별 교회 충성도 상위자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교회 충성그룹 상위자 기준 = '매월 수입의 1/10 이상 십일조 생활' & '코로나 종식 후 교회 출석 비슷 또는 더 자주' &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음(그렇다)'

한국교회에서 소그룹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0~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소그룹이 발달해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요인을 분석할 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치유 은사, 성령 운동을 언급하지만 초기 급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원이 된 것은 '구역'이었다는 분석이 있다.¹⁾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라는 걸출한 목회자의 개인 플레이에서 구역이라는 팀플레이로 전환했을 때 교회 재도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구역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목회 방법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도 1980년대 교회 주일 저녁예배 때 구역장이 일어나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몇 명이 참석했는지 보고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목회에서 구역 관리가 목회자의 주된 관심사였다.

요즘 한국교회에 구역을 대체한 소그룹들이 등장했다. 이름도 셀, 순, 다락방, 목장, 가정교회 등 다양하다. 외국의 소그룹 이론이 소개되고 그 모델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소그룹에서 변신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왜 이런 노력들이 나타났을까? 소그룹이 일찍 발달하고 교회의 근간이 된지 오래되었고, 세계 신학계가 주목했던 구역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소그룹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다양한 변신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소그룹 목회의 지향성, 철학의 문제이다. 소그룹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구역 조직이 목회적 돌봄과 전도를 주요 기능으로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구역원을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목회자에게 보고해서 목회자가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구역 사역의 흐름인데, 개인주의 심화, 바쁜 현대생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역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구역에서 원활한 돌봄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점에 봉착

한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교회 이미지 저하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기존의 구역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역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의식들이 소그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게 한 것이다.

둘째는 좀 더 원초적인 이유이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그룹은 일단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존 구역 조직은 주로 여성들이 평일 낮에 가정에서 모이는 조직이었다. 부부중심으로 가정 구조가 바뀌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었고, 자기 집을 개방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기존 구역 운영 방식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소그룹이 성립하지 않고 소그룹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그룹 내용과 구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한국교회는 절반 이상의 소그룹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서 보듯이 코로나 시대에 소그룹은 외로움과 단절감 속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유대감을 강하게 하며, 영성을 유지하고 위축되기 쉬운 일상생활에 활기와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간에 신앙 지표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활동자의 경우 개인 신앙 뿐 아니라 교회활동, 가정신앙, 자녀신앙 교육으로까지 긍정적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소그룹 활동자에게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또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소그룹 활동이 코로나 이후에도 줄지 않고 유지하는 교회일수록 현재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코로나 종식 후에도 교인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코로나 추적조사, 예정통합, 2021.06.)

이렇듯 현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의 유익함이 크게 나타나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그룹 관심도가 점차

1) 목회아카이브, '순복음교회와 구역(2)'(<https://haniin0207.tistory.com/494>)

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 가장 긍정적이고 결정적인 역할 기능이 바로 소그룹이라 판단되어, 우리 연구소는 '2022년 한국교회 키워드'로 소그룹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계층을 보면, 30-4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데,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로 오지 못하는 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예배가 하나의 예배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자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제는 어떻게 소그룹을 활성화할 것인가인데 각 교회의 상황에서 해답이 간단치 않다. 소그룹을 주된 사역으로 해오지 않은 교회의 경우 교회 전체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소그룹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소그룹의 정체성 혹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소그룹 성공의 절대적인 변수는 소그룹 리더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양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또 실행에 대한 피드백을 하느냐가 소그룹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맺기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우리교회만의 효과적인 수단(콘텐츠, 운영방식 등)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모쪼록 소그룹을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2022년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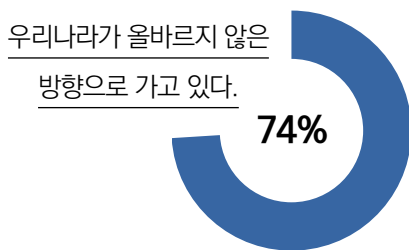
- 1.[각계 오피니언 리더 108인에게 묻다!]
- 2.[메타버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현황 및 인식]
- 3.[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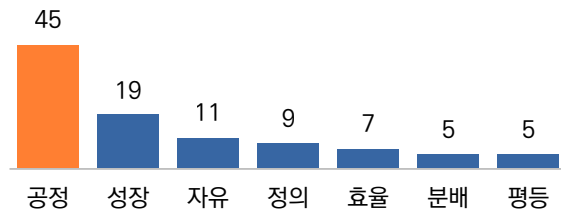
여론선도층, 향후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공정' 45%

- ▶ 최근 문화일보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8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운영 방향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 ▶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로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공정'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성장(19%), 자유(11%), 정의(9%) 등의 순이었다. 이를 현 시대가치로 이해할 경우, 곧 있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 가치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한국 사회 방향에 대한 인식 (여론선도층)



[그림] 향후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여론선도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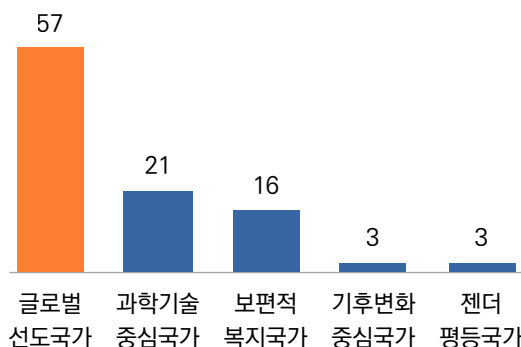


*자료 출처: 문화일보, 신년기획 '오피니언 리더 108인' 설문조사, '우리나라 가는 방향 바르지 않다 74.1%', 2021.01.0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30103013012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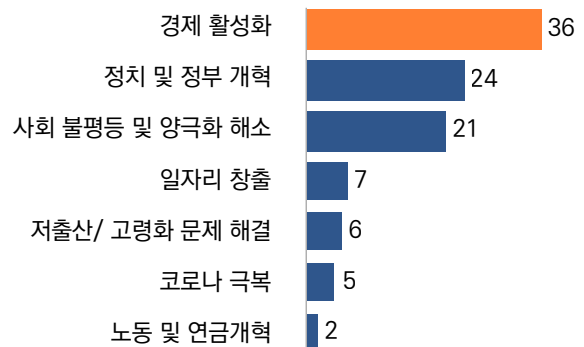
◎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목표, '글로벌 선도 국가' 57%

- ▶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목표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가'가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21%, '보편적 복지국가' 16% 등의 순이었다.
- ▶ 한편 새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 36%, '정치/정부개혁' 24% '불평등/양극화 해소' 21% 등의 순으로 지적됐는데, 일반국민의 경우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는데 반해, 여론선도층은 경제활성화 문제 이외에 정치 개혁과 양극화 해소 문제를 상위권으로 꼽았다.

[그림]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 핵심 국가 목표 (여론선도층, %)



[그림]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여론선도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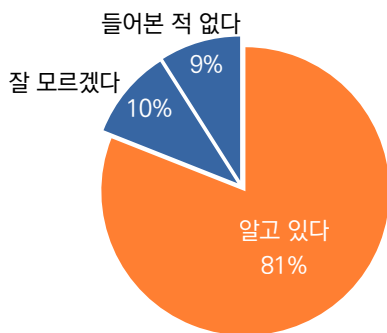
*자료 출처: 문화일보, 신년기획 '오피니언 리더 108인' 설문조사, '새정부 과제 '글로벌 선도국가' 56%... 우선추진 정책 '경제활성화' 36%', 2021.01.0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301070330129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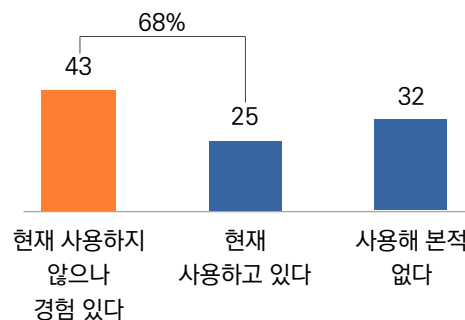
청소년의 68%,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사용경험 있어!

- ▶ 한 학생복업체에서 작년 9월 10대 청소년 총 7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타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학생이 메타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메타버스 어플 또는 프로그램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경험이 있다'(43%)와 '현재 사용하고 있다'(25%)의 비율이 68%로, 3명 중 2명은 메타버스 프로그램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해 본 적 없다'(32%)는 응답의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그림] 메타버스 인지 여부 (청소년)



[그림] 메타버스 어플 또는 프로그램 사용 경험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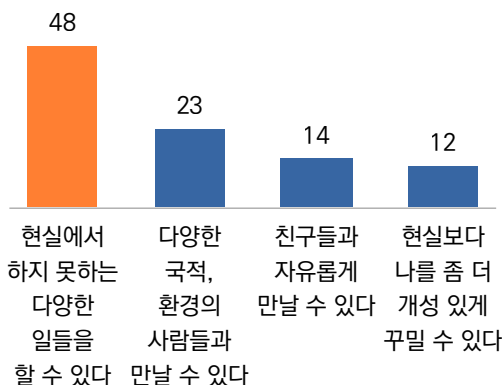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이코노미리뷰, '스마트학생복, '메타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공개', 2021.09.23., (10대 청소년 710명, 2021.09.01부터 2주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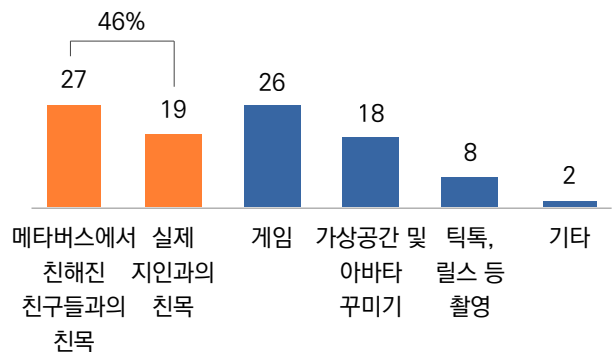
◎ 메타버스의 장점, '현실에서 못하는 것 할 수 있다' 48%

- ▶ '메타버스의 장점'을 물었는데, 2명 중 1명 가량이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48%)를 꼽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국적,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23%,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 메타버스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어플 또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메타버스에서 친해진 친구들과의 친목' 27%, 게임 26%, '실제 지인과의 친목' 19%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버스에서도 친목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모르는 타인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특성(익명성, 부캐 가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메타버스의 장점 (청소년, %)



[그림] 메타버스 어플 또는 프로그램에서의 주요 활동 (메타버스 사용경험 청소년, %)



*자료 출처 : 스마트학생복, '메타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청소년 설문조사, 2021.09.23., (10대 청소년 710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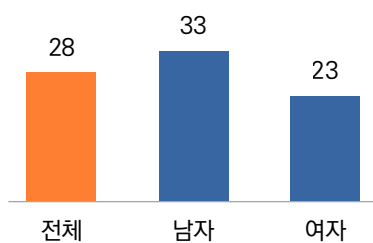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이코노미리뷰, '스마트학생복, '메타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공개', 2021.09.23., (10대 청소년 710명, 2021.09.01부터 2주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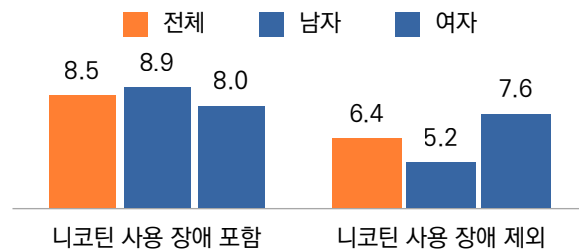
우리국민 4명 중 1명(28%),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 경험해!

- ▶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남자 33%, 여자 23%, 전체 28%로 우리 국민(성인)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으로 우리국민의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은 8.5%로 인구수로는 약 355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8.9%, 여자 8.0%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높으나,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1년 유병률은 남자 5.2%, 여자 7.6%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경우 여성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나(0.4%p), 남성 하락폭은 3.7%p로 여성에 비해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남성의 니코틴 사용 장애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림]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단위 : %)



[그림] 정신장애 1년 유병률 (단위 :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 2021.12.24.,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5,511명, 2021년 6~ 8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12.24.,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5,511명, 2021년 6월~ 8월)

◎ 정신장애 남녀 전체 1년간 유병률, ‘불안장애’가 가장 높아!

- ▶ 정신장애 각 진단명별 ‘1년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니코틴 사용장애’(4.9%), 여자는 ‘불안장애’(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녀를 합한 전체기준으로 1년간 ‘불안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 ▶ 우울/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여자가 6.6%로 남자 2.2%보다 3배가 더 높았다.
-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전체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가 1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니코틴 사용장애’ 9.5%, ‘불안장애’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는 알코올/니코틴 사용 장애 비율이 높고, 여자는 우울/불안 장애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정신장애 각 진단명별 유병률 (단위: %)

주요 정신장애	1년 유병률			평생 유병률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알코올 사용장애	3.4	1.8	2.6	17.6	5.4	11.6
니코틴 사용장애	4.9	0.5	2.7	17.7	1.1	9.5
우울장애	1.1	2.4	1.7	5.7	9.8	7.7
불안장애**	1.6	4.7	3.1	5.4	13.4	9.3
(우울장애 + 불안장애)***	(2.2)	(6.6)	(4.4)	(9.0)	(19.8)	(14.4)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12.24.,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5,511명, 2021년 6월~ 8월)

** 불안장애 :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 ()안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78호\(2022년 1월 1주\) - 대선 후보 지지도, 대통령 선택 기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 60호\(2022년 1월 1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등](#)

◎ 사회/경제 일반

[4차산업혁명 체감도, 코로나 사태 전 52%→후 73%](#)

연합뉴스_2022.01.06.

[국민 3명 중 1명 사회적 고립...“어려울 때 도움 구할 곳이 없다”](#)

중앙일보_2022.01.08.

[신혼부부 첫 아이 출산까지 평균 1년5개월...첫째·둘째 터울 2년](#)

연합뉴스_2022.01.11.

[반려견 평균 1.19마리 양육...월 양육비용 14만9천700원](#)

연합뉴스_2022.01.06.

[韓에 퍼지는 주 4.5일제...2년전 4일제 먼저한 기업 성과보니](#)

중앙일보_2022.01.10.

◎ 청소년/청년

[첫 고비는 초3 분수...고 2학생 셋 중 하나가 ‘수포자’](#)

국민일보_2022.01.06.

[\(전공별 취업상황\) 코로나에 심화된 ‘문송합니다’...문과 전공 취업만 더 힘들어졌다](#)

중앙일보_2022.01.04.

[\(청년 고독사\) 마지막 순간 스팸문자에 답장... 젊은 은수씨의 죽음](#)

국민일보_2022.01.06.

◎ 환경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시사IN_2022.01.10.

[4월부터 카페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매일경제_2022.01.05.

◎ 트렌드/건강

[“난 OO을 위해 소비한다” MZ세대 거센 ‘미닝 아웃’ 바람](#)

국민일보_2022.01.08.

[비만, 체중 감량하면...코로나19 위·중증 위험 60% 뚝 ↓](#)

국민일보_2022.01.04.

[내 건강체력은 몇 점?... 초간단 평가법](#)

헬스조선_2022.01.0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저출산 인구절벽 가속화, 교회 돌봄시설 대안될까”](#)

[아이굿뉴스_2022.01.06.](#)

[\(미국\) 종교 앱에 투자 두 배 이상 늘어](#)

[크리스찬타임스_2022.01.11.](#)

◎ 기획기사1 : 2022 한국교회 트렌드 (아이굿뉴스)

[1. 기술혁신이 가져올 미래변화… “실용적 대처와 본질 둘 다 놓쳐선 안돼”](#) _2021.12.31.

[2. 재난일수록 소그룹 사역 더 주목해야…“가장 성경적 대안이다”](#) _2022.01.05.

◎ 기획기사2 (서울신문)

[초연결시대, 당신도 외로운가요 上]

[고령층까지 ‘유튜브’ 삼매경…스마트폰 볼수록 ‘공허함’ 커졌다](#) _2022.01.02.

[재택근무 중에도 유튜브…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_2022.01.02.

[집·사무실서 혼자 덩그러니…코로나 ‘사회적 고립’ 키웠다](#) _2022.01.02.

[‘초연결시대’ 사는 한국인, 코로나에 2명 중 1명 “외롭다”](#) _2022.01.02.

[저소득층 5명 중 1명 “고립감 느낀다”](#) _2022.01.02.

[초연결시대, 당신도 외로운가요 中]

[“1인 가구 증가…‘외로움’ 더 심해질 것”](#) _2022.01.03.

[“유튜브 볼 때 통화 거절”…당신 외롭게 만드는 ‘알고리즘’의 비밀](#) _2022.01.03.

[외로움이 불러올 미래는…코로나 기간 우울증 환자 10년 새 최대폭 ‘증가’](#) _2022.01.03.

[“우울한 이용자 더 우울하게”…페북 내부 고발이 드러낸 알고리즘 민낯](#) _2022.01.03.

[“외로움도 사회적 질병, 연령·계층별로 지원망 촘촘하게 짜야”](#) _2022.01.03.

[초연결시대, 당신도 외로운가요 下]

[꽃 저명한 학자 “SNS는 인스턴트 음식…외로움 막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 막아야”](#) _2022.01.04.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영수,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종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응립,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용,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울림교회, 조양중앙교회, 부천명성교회, 방과후교회학교, 마을학연구소, (사)교회갱신협의회, 강영원, 박준하, 오수철, 유승우, 지현일, 김시은, 박지훈, 박철호, 반상명, 신지현, 윤치호, 이희석, 한병록, 백인철, 김은진, 고인구, Clara Yoon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교육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